

金日成 死後 2年：
北韓情勢 動向 및 展望

1996. 7.

李 教 憲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林 順 姬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目 次

I. 問題提起	1
II. 正統性 強化	2
1. ‘遺訓貫徹’과 忠·孝의 강조	
2. 김일성과의 同一視	
3. 김정일 偶像化	
III. 效率性 提高	6
1. 식량난 解消	
2. 생필품 增産	
3. 에너지 確保	
4. 대외경제 活性化	
IV. 社會統合과 強制性 確保	10
1. 軍部支持 確保	
2. ‘仁德정치’를 통한 住民包容	
3. 사상교양을 통한 社會統合	

V. 國際的 保障 獲得 13

1. 대미관계 개선 摸索
2. 대일수교 努力
3. 대중관계 復元
4. 남한배제

VI. 展 望 17

1. 김정일정권의 公式登場
2. 경제난 緩和
3. 사회통합 確保
4. 주변환경 變化
5. 대남관계 定立
6. 綜合展望

I. 問題提起

- 김일성 死後 2년동안 북한은 김정일 승계체제 정당화를 위해 정권의 정통성·효율성·강제성·국제적 보장 확보에 주력해 왔음.
 - 정통성은 김정일 執權의 정당화를, 효율성은 경제난 타개를 통한 주민지지 확보를, 강제성은 강제기구를 통한 사회통합 유지를, 국제적 보장은 체제에 대한 주변국의 支持를 의미함.¹⁾

- 본 보고서는 김일성 사후 2년동안 上記 4가지 부문에서의 김정일 治績 分析과 향후 분야별 정책방향을 展望하는 데 목적이 있음.

1) 위아르다(H. J. Wiarda)는 사회주의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①이데올로기의 위기 ②제도의 위기 ③사회의 위기 ④리더쉽의 위기 ⑤경제의 위기 ⑥사기의 위기 ⑦국제적 위기로 지적했음. Howard. J. Wiarda, "The Future of Marxist-Leninist Regimes: Cuba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epared for International Workshop, *The Durability and Direction of the Four Remaining Socialist Countries: China, Vietnam, Cuba and North Korea*, 한국국제정치학회와 민족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1994.5.27~28)에서 발표된 논문, pp. 6-12. 위아르다의 분류 중 본 보고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③, ④, ⑤, ⑦ 임.

II. 正統性 強化

- 정치적 정통성 확보는 권력유지의 必須的 조건으로서 김정일정권의 정통성은 김일성정권으로부터의 世襲에서 연유하는 바,²⁾ 김정일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 김일성노선 견지, 즉 '김일성 유훈' 관철 및 김일성과의 동일시를 구체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
 - 그러나 김정일은 승계이후를 대비해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음.

1. '遺訓貫徹'과 忠·孝의 강조

-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직후부터 新政策 채택 대신 김일성노선의 견지, 즉 '遺訓貫徹'³⁾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음.
 - 김정일은 공식승계시까지 김일성 권위를 통해 권력공백을 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2) M. Weber의 분류를 따를 경우, 북한의 정치적 정통성은 전통적 지배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New Jersey: Bedminster Press, 1969) 참조.

3)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유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김일성이 사망한지 불과 열흘 뒤였음. 「로동신문」, 1994.7.19.

○ 아울러 김정일은 권력승계 정당화를 위해 김일성에 대한 애도분위기를 人爲적으로 조장하는 한편, 자신을 김일성에 대한 忠·孝의 化身으로 묘사함.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정, 김일성을 ‘永生化’시키고 그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⁴⁾

- 승계지연 이유를 神的 存在인 김일성에 대한 애도로 돌림으로써 자신이 효자의 표본임을 과시하고 이를 승계 정당화 명분 및 공식취임 이후 자신에 대한 주민들의 충·효를 강요하기 위한 論據로 활용하려 함.

2. 김일성과의 同一視

○ 승계체제 정당화를 위해 김정일은 ‘김일성=김정일’이라는 等價논리로 카리스마 轉移 작업을 전개함.

- 김정일이 비록 세습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정권지속을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축적, 즉 카리스마 확보가 필수적임.

4) 평양방송은 이 구호가 김정일에 의해 나온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힘.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 모시려는 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가장 절절하고 가장 확고한 심성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신조와 철석같은 신념에 의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양방송, 「김정일 혁명력사강좌 162회」, 1995.1.15.

- 따라서 김정일은 카리스마적 존재인 김일성과 동일한 능력 보유자임을 과시하기 위해 “김정일은 수령과 사상도 같고 뜻도 같은 오늘의 김일성이다.”⁵⁾ “후계자는 수령을 닮으며 수령은 후계자의 모습으로 환생한다”⁶⁾라는 ‘金日成還生論’을 주장함.
- 이같은 시도는 “김일성의 최근 30년 시정 역사는 김정일의 혁명활동 역사와 완전히 일치한다”⁷⁾는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업적의 동일시로까지 진행되고 있음.

3. 김정일 偶像化

- 김정일은 승계이후의 事後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자신에 대한 이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바, 북한은 김정일을 “절세의 위인”⁸⁾, “걸출한 사상이론가이며 철학자형의 위인”⁹⁾으로 찬양하고 있음.

5) 김정일 생일 5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의 최대부 보고, 「중앙방송」, 1996.2.15.

6) 「로동신문」, 1996.2.15.

7) 「로동신문」, 1996.3.19. 한편 북한은 김일성과의 동일시를 위해 김정일이 김일성의 傾斜體 글쓰기를 이어받은 것까지 선전함.

8) 「평양방송」, 1995.6.19; 「중앙방송」, 1996.2.6, 2.7, 2.9, 2.11.

9) 김정일 당사업 시작 32주년 기념행사에서의 김기남 당비서의 기념보고(1996.6.18)

- 김정일은 사상가적 측면 강조를 위해 96년 부터 ‘붉은기 철학’(또는 ‘붉은기 정신’)을 개발, 김일성과 제한적 차별화를 시도하였음.¹⁰⁾
 - 아울러 북한은 금년 김정일 생일(2.16)을 前後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재해석한 ‘장군님의 한식술’론을 전개,¹¹⁾ 김정일의 사상가적 자질을 浮刻시켰음.
-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후계자 책봉과정에서의 獨自性 과시를 위해 김정일이 “특출한 자질과 실력으로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추대된 실력가형의 위인”¹²⁾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대외관계에서의 업적과 30여년간에 걸친 당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 94년 이후 김정일의 당사업시작 기념일(매년 6.19)을 성대히 개최, “김정일 동지의 30여년 영도의 역사는 위대한 영도자의 자랑찬 연대기”로 선전함.¹³⁾

10) 1996.1.9 「로동신문」은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라는 제하의 정론에서 김정일이 “조선혁명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혁명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붉은기에 담겨진 혁명철학을 밝힘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뜻깊은 붉은기 철학이 나오게 되었다”고 함. 이 신문은 또한 붉은기 철학이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만을 믿고 자기식대로 살아나가며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주와 창조적 철학”이라고 설명함.

11) 「로동신문」, 1996.2.5.

12) 「로동신문」, 1996.3.19.

13) 「로동신문」, 1996.2.1.

III. 效率性 提高

- 정치적 정통성의 安定的 持續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¹⁴⁾ 김정일은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북한주민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식량문제·생필품문제·에너지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¹⁵⁾
 - 북한은 1993년 12월 제3차 7개년 계획 실패를 인정하고 '3대제일주의'(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조정기(94~96)를 설정하였음.

1. 食糧難 解消

- 북한은 90년대 들어 집단영농방법의 非效率性, 영농기술 낙후 및 자재의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난에 직면해 왔음.
 - 특히 북한은 95년 대홍수로 인해 약 150만톤의 곡물을 상실했고, 약 36만헥타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4만헥타 이상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
 - 현재 식량부족분은 쌀과 옥수수를 3:7 비율로 수입할 경

14) Seymour M. Lipset,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3), p. 64.

15) 1996년도 북한의 경제전략은 알곡 및 수출품의 결정적 증산, 석탄·금속공업 및 철도운수 역량 집중, 생산에 있어 최대한의 증산·절약 방안 강구임. 1996년 신년 「공동사설」 참조.

우 약 2억3천만불이 소요되는 규모이며 10월까지 적어도 75만톤의 식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¹⁶⁾

- 김정일은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업제일주의'에 입각, 농촌에 대한 전국가적 공업화·현대화 실현, 농촌정리의 지도·관리 개선, 공업과 농업의 격차 해소,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 등을 강조하고 있음.

2. 생필품 增産

- 북한은 중공업우선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부문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극심한 생필품난에 처해 있음.
 - 경공업부문 중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합작을 통해 운영되는 봉제공업을 제외한 여타부문의 소비품 생산공장들은 10% 미만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¹⁷⁾
- 김정일은 '경공업제일주의'에 입각, 생필품 증산을 위해 家內作業班, 副業班 등을 장려하고 있음.
 - 북한은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 10주년(1994.8.3)을 맞

16) 「朝日新聞」, 1996.6.29.

17) 「한국은행」은 95년도 북한의 경공업생산이 前年對比 4.0% 감소한 것으로 推計하고 있음.

아 증산운동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10년 동안 소비품 생산은 3.5배 성장했으며 소비품을 생산하는 작업반, 가내작업반, 부업반이 46,500여 개로 증가했다고 주장함.¹⁸⁾

3. 에너지 確保

- 북한은 원유부족과 함께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까지도 採炭 人力 不足 및 갱도 깊이의 장거리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부족상태에 직면해 있음.
- 김정일은 “현시기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원료와 연료, 동력문제를 해결하는 것”¹⁹⁾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석탄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先行部門’으로 규정함.
 - 에너지 총소비량 중 70% 이상을 석탄이 점유하고 있는 바, 석탄부족 해결을 위해 고열탄의 저열탄으로의 대체 및 폐가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음.
 - 한편 KEDO로부터 매년 중유 50만톤을 공급받고 있으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임.

18)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1994.8), pp. 16~18.

19) 「민주조선」, 1996.3.19.

4. 대외경제 活性化

- 북한은 '무역제일주의'에 입각, 대외무역 활성화에 주력하여 왔으나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품질 低級化·공업생산 沈滯 등 내적 요인과 사회주의시장 喪失 및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대외 무역량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북한은 각종 경제관련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외 경제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바,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 投資誘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 사례는 김문성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서기장의 미국 하와이 두만강지역개발관련 국제세미나 참석(96.1), 김응렬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본 니가타 「96동북아시아 경제회의」 참석(96.2) 등임.
 - 그러나 나진·선봉지역 투자유치사업 실적은 1996년 1월 말 현재 계약총액 3억5천만달러에 실제 투자금액은 2천만 달러로서 지극히 부진한 상태임.²⁰⁾

20) 「内外通信」 週刊版 第1003號(1996.5.2.), p. D3.

IV. 社會統合과 强制性 확보

- 정치불안은 사회에 대한 공권력의 침투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바, 김정일은 군부장악을 포함, 사회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浸透危機는 국민들이 국가의 통치력을 폭력에 의해 無力化시키려 할 경우 심각해지는 바,²¹⁾ 통치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強·穩 양면책을 구사함.

1. 軍部支持 確保

- 김정일은 승계체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군부를 포함한 통제기구 장악에 주력하고 있는 바, 특히 군고위직 인사 및 군부대 시찰 등을 통해 군부내 상·하층 군인들로부터의 支持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혁명1세대 군원로들을 원수·차수로 승진시키는 한편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등 인민군 次帥들의 서열을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비서 사이로 상승시킴.²²⁾
- 한편 김정일의 95년 한해동안 총 33회의 공식석상 등장

21) 자세한 내용은 Lucian W. Pye, *Aspects of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Little Brown & Co., 1966), pp. 62-67.

22) 김일성 사망 2주기 추도대회 관련 「내외통신」, 1996.7.10일자 보도 참조.

중 17회가 군관련 행사였고 금년 7월 현재 10회에 걸쳐 군부대를 방문함.

- 이밖에도 김정일은 인민군창건일(4.25)을 국가적 명절로 格上,²³⁾ 군사기 양양 조치를 취함.
 - 이에 대해 최광, 조명록, 김영춘, 김광진 등 군핵심인사들은 각종 행사에서 '김정일 위해 총폭탄이 될 것'임을 맹세²⁴⁾함으로써 군부의 김정일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2. '仁德정치'를 통한 住民包容

- 김정일은 강경책과 함께, 대주민 포용노력의 일환으로 성분 차별이 없는 소위 '인덕정치'를 병행하고 있음.
 - 김정일은 '복잡군중'도 思想教養을 통해 개조되면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친필서한」이나 「감사」편지를 보내 일선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환갑상·생일상 등을 통해 파격적인 선물을 증정, 인자한 지도자상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23) 북한은 「조선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96.4.23)을 통해 군 창건일인 4월25일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하여 휴일로 하며 국기를 게양한다고 발표함.

24) 1996.7.8. 김일성 사망 2주기 추도대회시 김광진 발언 참조.

3. 사상교양을 통한 社會統合

- 사회주의권 붕괴 및 김일성 사망때문에 발생한 精神的 無秩序(anomie)로 인해 북한주민 및 인텔리 계층의 탈북자가 급증하고 있음.²⁵⁾
- 이에 대해 북한은 탈북자를 ‘혁명을 버린 卑怯分子’로 매도하는 한편, 김정일 중심으로 ‘일심단결’, ‘제국주의 책동’을 분쇄하자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음.²⁶⁾
- 아울러 김정일은 각종 ‘總和’ 및 ‘학습강연’을 통해 ‘사상의 순결성’ 고수를 독려하고, 특히 신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음.
 -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발표한 4편의 논문은 “주체사상의 순결성 유지 및 외부 사조의 침습 방지 등을 위한 사상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음.²⁷⁾

25) 90년대 이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는 90년 10명, 91년 9명, 92년 8명, 93년 7명, 94년 47명, 95년 26명 등임.

26) 「로동신문」, 1996.6.3.

27) 김일성 사후 발표된 논문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2),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1995.12.25)임.

V. 國際的 保障 獲得

- 체제 및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積極的 支持 또한 중요한 요소인 바,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의 全世界的 衰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關係약화 등으로 對外環境이 惡化되자, 對美關係 개선 및 對中關係 복원을 통한 南國타개를 시도하고 있음.

1. 對美關係 개선 摸索

- 김정일은 안보유지 및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전통적인 ‘반미주의’를 ‘通美주의’로 전환, 對美關係 개선을 對外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을 북·미 제네바합의(1994.10.21)를 통해 對美關係 개선기회로 반전시킨 후,
 - 제2차 뉴욕회담(1996.5.4-9)에서 미군유해공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작업을 통한 연내 공동발굴에 합의²⁸⁾함으로써

다”(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2),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 의리이다”(1995.12.25)임.

- 28) 1988년 미국과의 유해송환협상이 개시된 이래 북한은 「북·미간 미군유해 문제에 관한 합의서」(1993.8)에 의거하여 208구의 유해를 미국에 인도한 바 있음. 이후 제1차 하와이회담(1996.1.12-14)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였음.

- 이의 연장선상에서 식량난 타개를 위해 김정우·이종혁 등을 派美,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추가 완화조치 및 식량 원조 확보에 매진하였음.²⁹⁾
- 한편 미·북 평화협정체결 관철³⁰⁾을 위해 판문점 북측경 비구역내에서 무력시위를 감행(96.4.5~7)하는 등 강경책도 병행함.

2. 대일수교 努力

- 북한은 대일수교를 통한 보상금 획득과 경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일수교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일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 외무성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등 政·財界 인사초청은 물론, 리철진 일본과장 등 외교엘리트들의 방일(96.6.24)을 추진하였음.

북한측의 과도한 유해발굴비용 요구, 미국조사단 입국 반대, 유해협상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의 연계 등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음.

- 29) 미국은 1996.2, 6월에 각각 2백만, 6백만 달러분의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하였음.
- 30)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의 중간단계로서 1996년에 停戰協定の '잠정협정'에로의 전환을 제안함. 「중앙방송」, 1996.2.22.

3. 대중관계 復元

- 북한은 체제인정 및 경제원조 획득을 위해 한·중수교 이후 소원해진 대중관계 복원을 위해 정치·군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강택민 주석에 대한 연하장 발송(96.1.1)과 김광진 차수의 訪中(96.6.27) 및 북·중우호조약 체결 35주년(96.7.11) 기념을 위한 김윤혁 부총리 派中을 통해 북·중우호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한편 이성록을 중국의 ‘정치적 아킬레스腱’인 臺灣을 방문(96.6.21)토록 함으로써 중국의 대북지원을 촉진하도록 하였는 바, 중국은 羅幹 국무원 비서장 및 해군 북해함대를 派北, 대북 경제 및 군사지원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³¹⁾

4. 남한배제

- 북한은 대미·일·중 접근 노력과 함께 대남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하고 있으나, 대미 접근으로 인해 초래된 主敵喪失을 보완하기 위해 남한을 주적으로 설정, 철저한 남한정 부배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음.

31) 중국은 홍성남 부총리에게 2만톤의 식량지원을 약속(96.5.22)한 이후 2차로 약10만톤의 식량지원을 포함, 무상경제지원을 약속함(96.7.11). 「중앙방송」, 1996.7.12.

‘政府排除, 民間接觸’이라는 전통적 2중전술 차원에서 민간차원 교류·협력은 지속하고 있으나, 「4자회담」에 대한 무반응은 물론, 김일성 사망시 남한정부의 弔問不許를 이유로 ‘남한정권 타도 투쟁’ 선동을 지속하고 있음.

VI. 展 望

1. 김정일정권의 公式登場

- 김정일은 승계분위기 조성을 위해 김일성과의 동일시 및 자신의 이상화 지속, 사상가 및 經世家的 측면 강조,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내외적 자구책 강구, 사회일탈 방지를 위한 통제기구 강화, 군부에 대한 우대, 대미·일·중 관계개선 노력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對內外 環境의 열세로 인해 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음으로서 김정일 공식승계 역시 지연되고 있는 바, 공식권력승계는 김정일이상화 작업 및 對美·日關係 改善 등 유리한 승계조건이 조성되는 시점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승계지연 糊塗用인 '3년상'설³²⁾을 95년 대홍수 및 대미·일 관계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승계가 어렵게 되자 최근 '滿3년상'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공식승계 시기는 '만3년상'(97.7.8)이 끝나는 내년 후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³³⁾

32) 주창준 駐중국대사는 북경에서의 기자회견(1996.1.3)에서 “김일성 사망 2주기 이후 북한상황을 주시해 보라”고 밝힘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김정일의 공식승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음.

2. 경제난 緩和

- 북한은 향후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관철을 위해 ‘苦難의 行軍精神’ 강조 등 연례적 수준의 經濟煽動만을 거듭할 뿐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3대제일주의’ 미달성으로 인해 97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제4차7개년경제계획」은 수립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미국의 대북 연착륙정책, 중국의 적극적 지원 등 때문에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붕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3. 사회통합 確保

- 경제난으로 인해 중앙배급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암시장 등 私的部門이 활성화되는 한편, 이의 방지를 위한 각종 통제 기구의 증설·강화가 예상됨.
 - 자재 및 식량의 私的 거래, 주민들의 개인이익 추구, 뇌물수수, 절취, 줌도둑 등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바, 경제난이 완화되지 않는 한 사회 통합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3) 김정일의 공식승계 시기에 대해 최근 멕시코를 방문한 최고인민회의의장 양형섭은 현지신문과의 회견(96.6.27)에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내년 10월경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북한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탈북방지를 위해 '비사회주의 그루빠' 활동 강화 등 각종 감시통제장치를 확대·강화할 것임.

4. 주변환경 變化

- 북한은 미국과의 핵문제 타결 및 미군유해송환협상에 대한 성실성 과시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 軟着陸 정책을 유도하는데 성공하였고,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 회복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바, 향후 북한의 주변환경은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4자회담 수용전제 등 미·일의 한국입장 考慮原則으로 인해 북·미, 북·일관계 개선이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은 약하나 미·일의 대북유화정책은 북한체제 안정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임.

5. 대남관계 定立

-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남 적대관계 지속 필요성으로 인해 「4자회담」 즉각 수용을 비롯한 급속한 대남관계 개선은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경제난 해결 및 대남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民間次元의 남북경협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³⁴⁾으로 예상됨.

6. 綜合展望

- 김정일은 현재 정통성, 강제력, 국제적 지원 등은 확보하고 있으나 효율성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 김정일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 不安要因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적 궁핍에 대한 주민불만이 현재 위험수준은 아니나 '항일유격대식 생활방식'으로 포장된 耐乏生活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효율성 및 사회통합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김정일의 정치적 권위를 크게 毀損하여 심각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임.

- 효율성 제고를 위해 김정일은 선전선동차원에서 '고난의 행군정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革命的 義理', '동지애'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임.
 - 그러나 사상교육을 통한 對주민 설득은 경제회복이 없는 한 사회통합과 정권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임.

34) 북한이 오는 9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 남한 민간단체와 기업인을 대거 초청키로 한 것은 나진·선봉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남한참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됨.

○ 아울러 북한은 부정부패 및 사적 거래와 관련된 經濟事犯을 극형에 처함으로써 국가의 사회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그러나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리더의 無能力 등으로 인한 국가배급체제의 마비는 식량구입 목적의 주민자유이동 및 대외 밀무역 목인, 소토지(터밭·땀기밭) 경작 및 농민 시장내 식량생필품의 私的 거래 허용 등 '非公式部門'을 활성화시킬 것인 바,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체제변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북한은 향후에도 「4자회담」 무조건 수용을 통한 대남관계 개선 노력은 외면한채, 미·일관계 개선 및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식량지원 획득 노력만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은 체제의 구조적 한계로부터 露呈된 것인 바, 남한의 전면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서방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부분적인 지원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을 것임.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情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화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的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中·北韓關係 變化 研究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중심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 2年: 北韓情勢 動向 및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 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 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金日成 死後 2年：北韓情勢 動向 및 展望

統一情勢分析 96-06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237-9288, FAX：237-9289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266-0892

印刷日 1996년 7월 일

發行日 1996년 7월 일
